

# 建築教育의 目標

安 瑛 培

本稿는 韓國建築家協會 78年度建築討論會 意見論文임

7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經濟와 工業分野에 놀랄 만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建築分野에도 建築의 規模가 大型化함으로써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建築家로서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不安感도 없지 않습니다. 中東 부흥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建築技術者의 수요는 建築界의 人材不足 現象을 일으키고 있고 大學에서는 부족한 建築教育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實社會에서는 부족한 實務經驗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큰규모의 建物設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안감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大學의 建築教育의 目標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時間이 너무나 짧았고 建築教育의 目標設定을 李海成 教授가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첨가해야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여기에 약간의 의견과 이것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知와 美와 道德이 합쳐진 教育의 像이 바로 全人間教育의 像이며 道德의 行動이 人間完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李海成 教授의 지론은 극히 당연한 말이어서 누구나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建築教育의 目標가 全體的 建築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현대와 같이 科學文明이 극도로 발달하여 모든 직업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도 오랜 과거부터도 통용되었던 사실입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골격이 건실해야 하는 것은 建築物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선행해야 할 중요한 요건인것 처럼 한국의 건축교육의 지표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이 때 이것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全人間的인 教育의 像은 비단 建築이 아니더라도 社會, 經濟, 藝術全般에 걸쳐서 필요한 것이며, “全體性”도 역시 建築에만 한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建築이나 教育을 논할 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한 問題點을 제기하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教授는 지금은 建築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이수할 수 없는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建築課題를 개인적 책임하에 개성적 직관력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建築家는 音樂指揮者와 같이 指揮者의 建築家, 綜合하는 능력을 가진 建築家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建築家라는 말 자체가 원래 종합해서 構想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強調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問題는 그 다음에 있다고 봅니다. 갖추면 갖추수록 좋은 建築을 창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人間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도 없거나 그릴 필요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관련된 여러 부문에 걸쳐 세부에 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자칫하면 한쪽에 치우쳐서 편협해지기 쉬우므로 全體的으로 종합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분야 중에 한 작은 부분의 Specialist가 좁고 깊게 알고 있는 것에 반하여 建築家は 넓고 좁게 아는 것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建築教育의 方向設定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建築理論으로부터 構造力學, 鉄筋 콘크리트, 鉄骨構造 그리고 材料, 施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식은 훌륭한 建築家로서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는 학문이지만,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식의 교육 부담은 훌륭한 建築을 구상하고 종합하는 힘을 기우리는 데는 오히려 역행이 될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構造專門家가 안 될 바에는 構造力學을 2년씩이나 걸려 가르쳐야 할 지 의심이거며, 이를 위해 高等數學을 배워야 하고 建築設備, 材料, 施工 등의 이론습득을 위하여 너무나 큰 부

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設計實習時間이 잠식되어 가고, 심지어는 다른 작은 과목 하나와 동등시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建築士試驗科目에서까지 建築設計가 다른 과목과 동등시되고 있는 것도 그 좋은 실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卒業予定者에 대한 技士1給 制度에 構造技士와 施工技士 자격만 있는 것도 정상적 건축교육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을 찾아 보면 대학에서 建築工學과 建築教育을 동시에 하려는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에 대학교육은 建築工學에만 치우쳐서 이러한 실정에서 우수한 建築家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建築家가 Almighty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全人教育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협동하는 힘과 여러 가지들과의 토의를 거쳐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과의 대화와 토의는 빠른 시간에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의하고 협동하는 능력도 실습을 통해 교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建築이 小數人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大衆을 위한 것이라 볼 때, 建築家의 단독적인 판정은 위험한 일이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토의하고 협동하며 넓은 아량심을 갖도록 建築家는 교육되어야 합니다. 建築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관제로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이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된 교육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建築家는 인간의 이상적인 生活空間을 창조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人間生活을 批評·分析·檢討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생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해야 하며, 아울러 空間構成에 대한 많은 Practice를 소요로 합니다. 이것을 위한 보조적인 기술분야는 협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建築家는 적어도 모든 것을 종합하는 능력과 아름다운 空間을 구상하는 능력만은 스스로 지녀야 합니다.

建築教育은 芸能方面과 같이 理論과 實習이 병행하여야 합니다. 實習이 부족하면 올바른 理論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의 Practice는 理論의 理解를 돕고 또한 여기에서 얻어진 이론은 실습의 차원을 높혀 줌으로써 建築의 理解와 創作의 能力을 높혀 주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大學教授도 Practice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建築分野도 醫學界와 비슷한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美國에서는 建築設計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면서도 5년제로 되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6년제나 8년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방법으로 우수한 建築家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우연히 美的 센스가 좋은 사람중 몇사람이 재능있는 建築家로 알려져서 편협된 방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建築界에서는 建築家라면 오히려 造形만 따지고 그 밖의 일은 소홀히 한다고 해서 建築家 不信風潮까지 일고 있습니다.

또 한 反面으로 뜻있는 建築家들은 建築의 기초과정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채 서투른 재간만을 피우는 것을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옳은 建築인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채 技術教育에만 치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構造技術者도 똑같은 建築工學科를 이수했기 때문에 같은 建築家로 자부하고 있으며, 建築家가 構造에 대한 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약을 팔고, 약사가 진찰없이 임의로 판단해서 약을 파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사와 약사와는 이수과목이 엄연히 다르고, 분야가 다르게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建築家도 構造技術者나 設計技術者와 똑같은 하나의 職業人입니다. 단지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과 협동하여 종합함으로써 建築을 藝術的 次元으로까지 끌어 올리는 技能이 다를 뿐입니다.

建築이 科學的 機能充足만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인간에게 참다운 기쁨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藝術을 따로 어렵게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의 부족한 능력과 부족한 기능을 충족시키며 인간생활에 생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建築을 技術的 領域을 초월하여 藝術的 段階에까지 끌어 올리는 노력이 建築家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科學과 藝術을 同時에 追求하려는 建築家의 할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Le Corbusier의 말과 같이 50대 가야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은 建築이 그만큼 어렵고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일을 기다리다가 힘들게 되었으며, 지금은 30대에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音樂에도 젊은 지휘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 지휘자가 연주자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업분야에서 도 50, 60대라야 하던 社長職이 30, 40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권위직이 아니고 하나의 職業人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60代, 70代까지도 계속 창작생활을 하려고 하는 建築家의 意志와 社会的 與件도 아울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스피이디한 시대입니다. 建築家 養成을 위해서는 그것대로의 專門教育이 필요합니다. 構造工学을 겸한 建築工学이 아니라 建築教育에 가장 우선하는 분야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建築과 構造工学專門은 엄연히 구분되어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造形이나 構造 어느 한쪽에만 치중된 건축가가 아니고 또한 설비나 시공을 소홀히 하는 건축가가 아니고 李教授의 말대로 全人教育과 全体的 建築教育을 위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構造技術은 長足の 發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建築設計 方面에는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도 이러한 교육제도의 폐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Less is more” 이것은 Mies의 유명한 말이지만 建築教育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建築教育方法도 建築創作方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수한 建築家를 양성 하려면 체계있고 종합적인 教育方法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建築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 참여하게 될때 야기되는 建築公害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建築 이외의 사회인이 建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公害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建築教育의 目標定立과 科学的인 建築教育 方法의 設定은 몇개의 우수한 建築作品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서울産業大學教授